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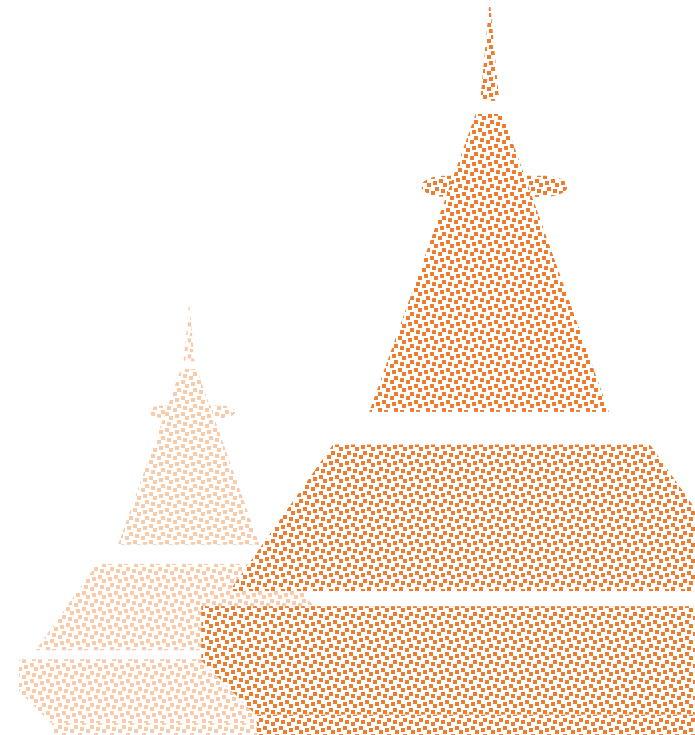
Ra🌐nAtti in Myanmar



2014.09.04~2014.09.30 양곤팀의 9월 활동기



1. 팀 소개
2. 활동요약(달력)
3. 지도로 활동지 위치 소개
4. 호스트기관 소개
5. 양곤 소개
6. 지역별 소개 / 활동
 - 지역소개, 사람소개, 활동소개, 고민
7. Social 활동
8. 생활 이야기
9. 개인 에세이



백종석.24 (Baek)

아빠, 한 박자 늦은 웃음, 다람이,
메리 진의 남자, 미군(미얀마 군용), 고양이 성애자

고양이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아빠.

'고양아~ 일루와봐 우쭈쭈 우리 아 데리고 갈까?'

신태정.22 (코코끼:끼:)

사진중독, Jaws, 하얀 여자(피부가 하얗다), 씨스루 바지
9월의 병자, 밀가루덕후

9월 한달내내 아픔을 담당하는 병자.

쿠키, 초코, 빵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밀가루 덕후.

송다정.26 (DJ)

딸 아 산트라, 사랑쟁, 안주계의 큰손
유유성애자, 송스코(세스코)

배고플때마다 신세계 음식을 마련해 주는
미얀마팀의 엄마손.

권희설.23 (Kwon)

미얀마남자는 다 내꺼

보거스, 레페에지/콜라/진토닉 좋아요.

의도된 매력 흘림일까.. 미얀마의 인기녀 보거스 KWON.

김정식.22 (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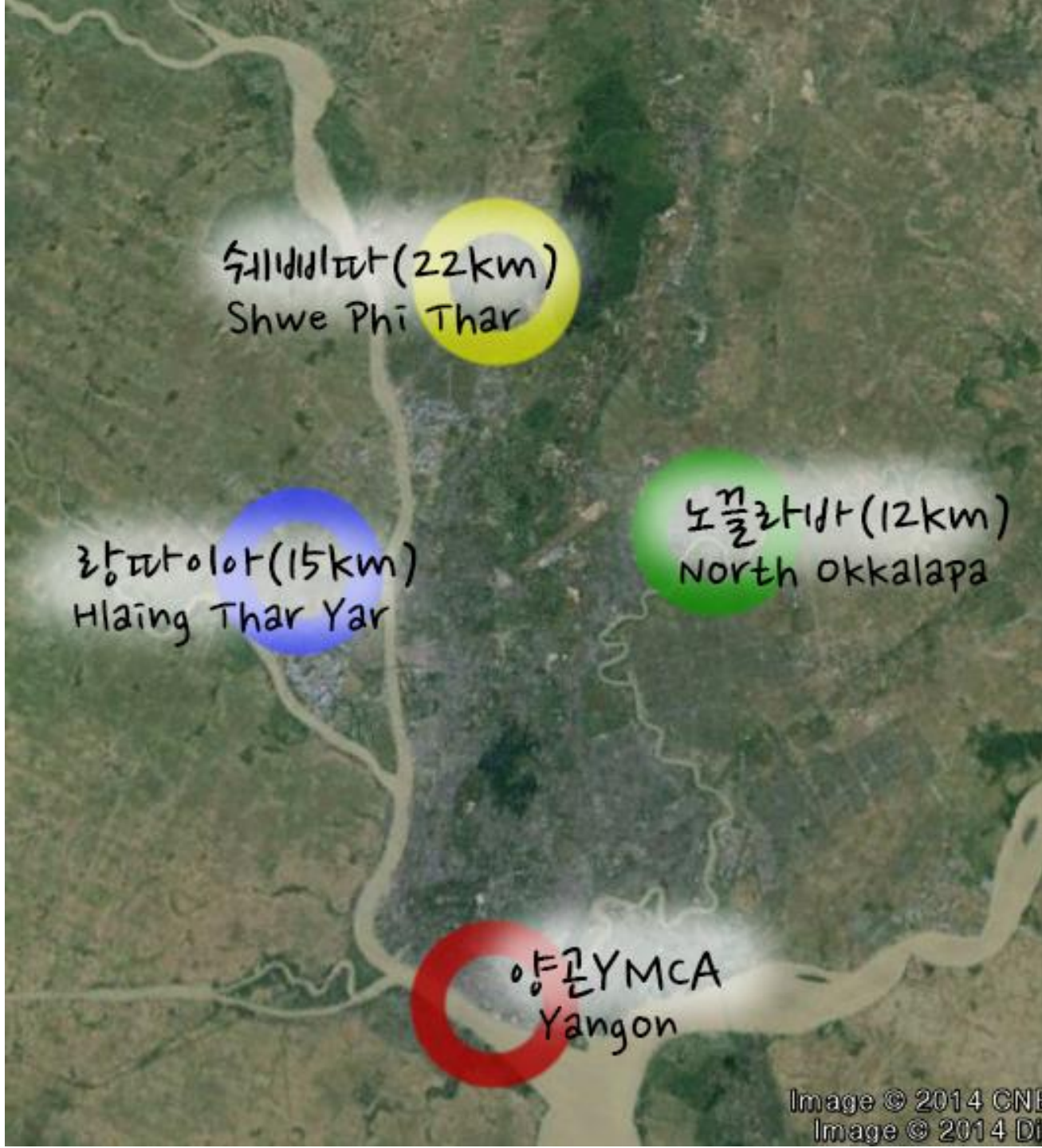
카사노바..?, 알고 보니 막내
아침국수 혐오증, 찰밥 매니아
차(茶)있는 남자, 상투 든 남자의 매력

적응력이 가장 빠른 막내.

미얀마 여성들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코리아루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 •미얀마,양곤 도착	5 •Hlaingthar yar 라운딩 직원들과 저녁식사	6 •쉐다곤 파고다 •첫 론지구입 •보족마켓구경
7 휴식 •보타통 파고다 방 문	8 •Y Nursery 라운딩	9 • North Okkalapa 라운딩 (종이 목걸이 수업 진행)	10 • Shwephitta 라운딩	11 • Shwephitta 라운딩	12 • Hlaing thar yar 방문	13 •보족 마켓 •다공 센터
14 휴식 • 태정 턱빠짐. (응급실 행)	15 •Y Nursey •Y 건물/직원 소개	16 •North Okkalapa •정간사님 도착	17 •Hlaing thar yar (MF 소개/가정 방문) •차이나타운 외식	18 •Shwephitta (첫수업, 종이접기) •미얀마 음식점 외 식	19 •Hlaing Thar Yar •10월 계획 수립	20 •10월 계획 수립 •차이나 타운 외식
21 •Home Visiting (산드라집, 정선스 퀘어, 깐도지) 희설 생일	22 •Y Nursery - 울동 산드라와 미팅	23 •Maubin 견학 - MF마을 둘러보기 •정간사님 출국	24 •Hlaing Thar yar (MF/클리닉 활동)	19 •Shwephitta (사찰 청소/ 한국어 수업)	26 •HIV 센터 고아원 참전용사묘지 방문 •나병환자자녀 후원 행사 참여	27 휴식
28 •Y Acting School 연기발표회 참석	29 •Y Nursery - 울동, 체조 도서관 활동	30 •North Okkalapa (마을 Mapping/ Nursery 보조)				



양곤YMCA



◆ 양곤 YMCA (263.Mahabandula street, Botataung City, Yangon)

양곤 YMCA는 Botataung City에 위치해 있으며, 양곤의 도심과 매우 가깝다.

건물은 모두 3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는 2동만 사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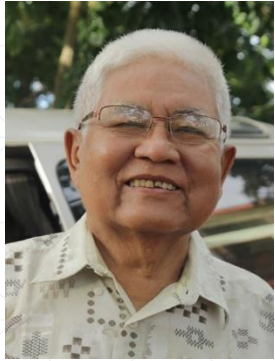
건물은 주로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되며, 양곤 Y사무국은 Micro Finance, 지역구호활동, 클리닉, Nursery School 등 다양한 사업들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띠 숙소는 신 건물 7층에 위치하며, 건물 내 주 활동지는 5층 도서관과 2층 Nursery School로 이루어진다.



양곤YMCA 인물 소개

4. 호스트기관 소개



우 핀라
이사장
웃음이 인자하신 닥터



우 파난 (Sonny)
사무총장
양곤의 연예인
개그 필충만!



산드라
코디
아띠들의 엄마



우 윈
두번째 코디
으아 나베나 나베나



우 띠년에
아띠들의 동반자
듣는 언어 선생님



우 웨인트우
아띠들의 동반자
점있을때 클린티스트우드



쏘레이
프론트 직원
순수한 청년 쏘그리



미뚜
프론트 직원
Y의 미모담당



쨌쨌
프론트 직원
백잉백잉 귀여워



메이딸(Maythai)
프론트 직원
5월의 여왕. MAY QUEEN



레이꼬우
운전기사님
식~동생~ 사랑해~

그 외
양곤 Y직원수 - 130여명

(다음번에 더 소개하기로..)

양곤 지역 소개



◆ 양곤 (Yangon)

미얀마의 중서부에 위치하며, 양곤 강을 띠고 있어 항구가 있음.
강을 통해 무역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가장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타지에서 일자리를 위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주해온다.
그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이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시절 지어진 영국풍 건물들을 도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인종

미얀마가 100명이라면

68명이 버마족	9명이 shan족	7명이 kayin족
4명이 rakhing족	3명이 Chinese,	2명이 indian족
2명이 mon 족	5명의 기타	



◆ 언어

매우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기때문에 버마어 부터 각 종족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어와 인도어, 영어, 종교에 따라서 무슬림어까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타텅 지역(Botataung Tsp.)

우리의 숙소가 위치한 곳은 양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인 Botataung Township이다. YMCA 건물 바로 옆에는 구 정부청사가 자리잡고 있고, 거리마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쓰인 건물들이 즐비하다. 숙소의 베란다에서는 저 멀리 양곤강이 흐르는 모습과 보타텅 파고다가 보인다. 이 파고다는 부처의 머리카락을 보관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보족 시장이 있는데,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들른다는 커다란 시장이다.

아띠들은 일주일 내내 3개 마을을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을 법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주변지역부터 차근차근 알아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 보족마켓



• 양곤 강



• 쉘다곤 파고다

Nursery School (양곤 YMCA 2층)

◆ Nursery School 인물 소개



에디
원장선생님
네임컬스미컬~
정식이 바라기



로즈마리
3세 반 선생님
수줍음 뒤에 숨은
엄격함



디디 아웅
4세 반 선생님
열정적인 미얀마어
교과서



니웨이
5,6세 반 선생님
튼튼한 교사들의 말엔니
+외 4명

◆Nursery school 활동

- 교육방식이 체계적이며 타 지역 Y Nursery에 비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교구)과 놀거리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수에 비해 많은 선생님들 덕에 수월하게 수업이 진행되며 아이들의 집중도 또한 높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이곳 교육과정은 반복학습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매너와 행동들(정리, 수납, 인사, 예절교육, 등)을 배우고 있다.



◆ Nursery School 아띠 활동



• 동요 및 율동 지도 - 곰세마리 (15일) - 뽀뽀뽀 (22일) - 트니트니 체조 (29일) • 수업 보조

◆ 고민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창의성이나 다양성이 떨어지지만 독립성이나 자주성은 매우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교육 과정이 있어 수업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다.

따라서 다가가기 쉬운 동요와 율동을 아침 체조 시간에 시행하였다. 처음 2차시는 그곳이 문을 닫는 3시까지 그곳에 있었지만 아이들 낮잠시간이 2시 30분까지이므로 3차시부터는 아침부터 점심시간(12)까지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도서관 (Come Clean)



◆ 토의 및 고민

• 환경개선

-도서관 공간재배치 및 정리토의

(내용) 도서관은 3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음. (창고, 책방, 독서공간) 양곤 Y의 도서관을 청년 유입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실제로 죽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고 청년들의 Y로 유입경로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방법으로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실감하였고 언어교환, 문화 교류 등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먼저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도서관은 유료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현지 코디와의 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아 아직 토의 중이며, 도서관 사용방법, 프로그램 계획 등에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 개관시간 : 수~금 (2시부터 5시) 토, 일(11시~4시)

도서관 이용요금: 1달 2000원 (1주일 책1권)

6개월에 6000원(2주일에 3권) 12개월 만원(2주일 3권)

1주일 연체 시 2000원



North Okkalapa



• 지역소개

North Okkalapa는 양곤 Y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쯤 북쪽으로 달리면 나오는 구역이다.

마을에 들어가기 전, 저 멀리 거대한 불상의 머리가 보인다.

Y로 가는 길에 병원, PC방, 바나나 가게 등이 모여있는 마을의 시장을 지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마다 카페들이 있다.

오전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그곳에서 휴식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North Okkalapa에는 큰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교회가 많고 서쪽에는 불교 사원이 많다.

응아 모액이라는 강이 마을을 크게 감싸며 흐르고 있다.

강가에는 커다란 생선처리 작업장이 있다.

◆ North Okkalapa Nursery school 기관 소개



North Okkalap Y는 건물 2채로 이루어져있다.
 왼쪽 시멘트 단층 건물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있는 Day Care Center 이다.
 오른쪽 목조건물은 원래 직원들의 공간이었지만 건물이 낡아 현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

마당이 있지만 항상 물이 고여있어 들 어가지 못하고 마을의 닭과 병아리들만이 자유롭게 드나든다.
 왼쪽의 유치원 건물에서 선생님 4분과 3~5세 아이들 40명 정도가 수업을 한다. 수업 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고, 전구가 부족해 실내가 어두운 편이다. 우리는 이 건물 구석의 조그만 방에서 주로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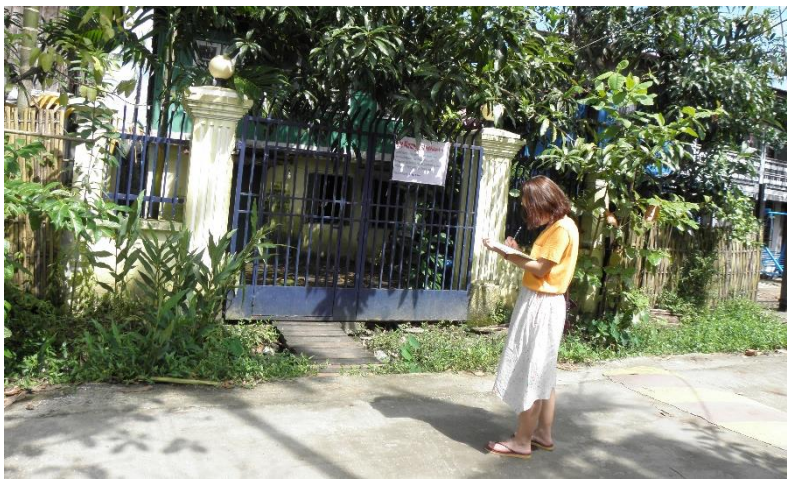


◆ North Okkalapa Nursery school 인물 소개

[왼쪽부터]

- 노 떼마세잉 (흥을담당하시는 선생님)
- 냥 꺱초나잉 (항상 맛있는 것을 챙겨주시는 선생님)
- 마 에에카잉 (카리스마 원장선생님)
- 냥 보아키 (허스키한 보이스를 가진 선생님)





◆ North Okkalapa 아띠 활동

- 종이목걸이 만들기
 - 한국 동요/율동 알려주기
 - 놀이(기차놀이, 수건돌리기) 함께 하기
 - 청소, 아이들 식사 도와주기
 - 아이들 집 배웅해주기
-
- 마을 Mapping
 - 마을 길목에서 아이들과 놀기



◆ 고민

North Okkalapa에서 아띠가 주로 지내는 곳은 데이케어 센터의 조그만 방 한 칸이다. 이 마을에서 우리가 설 수 있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직까진 데이케어 센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주이지만, 점차 마을로 나아가 모든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활동을 모색 중이기 때문이다. 데이케어 센터 바로 옆에 빈 목조건물이 하나 있지만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간을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마땅한 공간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방과 후에 비어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활용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데이케어 센터를 '마을의 사랑방'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지,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고민이다.

Hlaing Thar Yar



• 지역소개

Hlaing Thar Yar는 양곤 서쪽 Hlaing강을 건너면 나오는 구역이다. 이곳은 양곤의 대표적인 공업지대로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우리가 활동 하는 곳은 YMCA 센터가 있는 깡흘라 마을이다. 마을의 연못을 중심으로 사찰, 학교, 목공소 등이 있고 좀 더 벗어나면 쓰레기 처리장과 경찰서도 있다. 이곳에는 양곤의 개발정책에 밀려 이곳으로 집단 이주한 사람들이 많다. 2008년, 나르기스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뒤부터 Y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 Hlaing Thar Yar 기관 소개



YMCA 클리닉 센터와 데이케어 센터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클리닉 센터는 2층 건물로, 1층에서는 진료를 하고 2층에서는 MF (마이크로 파이낸스) 주민모임을 진행한다.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선생님 3분과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 그 옆 건물은 애프터 스쿨 교실로, 7세에서 17세 사이의 아이들이 모여 숙제 지도나 수업을 받는다. 교실의 뒷 방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봉제 수업이 열리고 있다.

아띠들은 주로 클리닉 센터 2층에서 지내며 활동 준비를 한다.

◆ Hlaing Thar Yar Clinic Center 인물 소개



[왼쪽부터]

닥터 우핀라 / 닥터 FMI 시티
쏘짚피자 (튼튼하게 클리닉을 지켜주심.)
소우시쇼 (랑따야 보스!)
세이포 (한국말 잘하는 간호사언니)



◆ Hlaing Thar Yar 아띠 활동

- M.F를 통해 주민들 만나기(마을 둘러보기, 집 방문)
- 클리닉을 통해 마을 주민들 만나기 (간호사 보조)
- 마을 Mapping (주민들과 인사하기,
마을 아이들과 함께 놀기)

◆ Hlaing Thar Yar Nursery school 인물 소개



◆ Hlaing Thar Yar Nursery school 아띠 활동

- 데이케어 센터 아침 체조 수업 진행 및 보조
- 애프터 스쿨 아이들과 함께 클래스 구상하기

◆ 고민

허리케인 나르기스가 휩쓸고 간 탓인지 다른 양곤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해 보였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길거리에는 도처에 쓰레기가 널려있다. 집 주변에 썩은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두는 마을주민들을 보면서, 아띠가 마을의 환경, 위생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있다.

다른 양곤 지역의 Nursery와 비슷하게 이곳의 수업도 단조롭고, 반복적인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아띠들이 수업 보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앞으로 아띠만의 수업 내용을 준비한다거나, 교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좀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탐색 중이다.

Shwe Phi Thar



◆지역소개

양곤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양곤 재개발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주지스님을 따라서 이주해온 곳이기도 하다. 이 동네의 유일한 초등학교는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찰과 학교 중심으로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기차 종점인 Hlawga역에서 10여분 High lay(트럭개조버스)를 타고 심지어 그 버스의 종점까지 가야 만날 수 있는 마을이다.

◆ Shwe Phi Thar 기관 소개



Shwe Phi Thar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 안에 위치한 학교 이다.

총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실이 있는 공간 옆에 YMCA에서 운영하는 Clinic Center 또한 위치한다.

주지스님께서 학교와 Clinic Center, 사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독 및 운영하신다.

이곳의 학교의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이루어 지며 Clinic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4~5시까지 운영된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미얀마어(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총 5과목이다.

각 반마다 1명의 담당선생님이 맡고 있으시며, 총 5반, 5분의 선생님께서 운영된다.

또한 사찰의 동자승들 또한 학교의 수업을 동일하게 받으며 사찰 내 기숙사에 거주한다.

◆ Shwe Phi Thar 인물 소개



- 우 버징 케이마(주지스님)

(외)

우 씨안다

학교 선생님님 5분

학생 200여명



◆ Shwe Phi Thar 아띠 활동



- 환경개선 청소 (25일) 앞으로 매주할 계획

- 학교 수업 (한국어, 체육, 미술, 위생)

9월 18일 - 미술교육으로 종이 접기

(비행기- prep/ 꽃- 1학년/ 풍선- 2학년/ 학- 3,4학년)

9월 25일 - 한국소개 및 기초 한국어 인사말 교육

(지도로 한국과 미얀마 위치와 크기비교, 한글쓰기 유인물을 만들어 교육)

분반: prep- 백종석/ 1- 신태정/ 2- 송다정/ 3- 김정식/ 4- 권희설



◆고민

거리가 너무 멀고(왕복 4시간)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사이트였다.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지스님 방에서 식사와 휴식을 항상 가졌다. 초반에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었다. 초반에는 우리가 마을에서 꼭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집들이 너무 띄엄띄엄 있고, 또한 젊은 사람들을 보기 힘들며, 마을이 매우 넓어 무엇을 해야 할 지 상당히 고민이 되었다. 그로 인해 사이트에서 제외하자는 말까지 나왔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마을 안에서 직접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과 수업하고 같이 노는 것을 통해서 마을을 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점심시간에 맞추어 학교에 도착해서 점심식사 이후 사찰청소(마당 쓸기, 쓰레기 뽑기), 1시 45분부터 2시30분까지 종례시간에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 그 이후 아이들과 함께 노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클리닉에 오는 마을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사원이기 때문에 여자 아띠들은 특별히 복장과 동자승을 대하는 태도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리고 주지스님을 포함한 사찰 내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관계로 우리와 항상 함께 움직이는 우 편에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소통이 불가능 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1) 산드라 Home Visiting



◆ 산드라 Home Visiting

현지 코디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 할수 있는 기회. 산드라의 집은 2층 집이었다! 3층에는 옥상까지. 함께 점심을 준비해 바비큐 파티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다. 저녁에는 깎도지에 가서 밤 호수 구경도 하고 맛난 저녁도 먹고 왔다. 집들이 선물로 정식이 전주에서 가져온 전통부채를 선물로 드렸더니 산드라가 몹시 기뻐했다. 초대해 주신 산드라, 감사합니다!



◆ 아띠들의 소감

- 카렌족 모여사는게 신기했어. (석),
-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좋았어. (태)
- 식구들과 함께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좋았어.(설)
- 같이 밥을 같이 먹었던 식구가 되어서 분위기조차 배불렀어(식)

2) HIV/고아원/참전용사 묘지



◆ HIV/고아원/참전용사 묘지

병원이 외국인 출입 금지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론지(미얀마 전통복)를 입고 중국계 미얀마인인척 해서 들어갔다.
병원과 고아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고, 단순 견학이었다.



◆ 아띠들의 소감

- 병동에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놀랐다.(설)
- 고아원 아이들이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인지 연기에 능숙한 것처럼 보여서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양곤 YMCA가 하는 활동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하루. (석)
- HIV병동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우리에게 환한 얼굴만을 비추었다. 그 표정 뒤에는 희망이 있을까 절망이 있을까(식)

3) 나병환자 자녀 학교보내기 행사 / Acting School 연극회



◆ 나병환자 자녀 학교 보내기 행사

어떤 행사인지 공지조차 받지 못하고 불려갔던 행사들이었다.
양곤 Y는 30년째 나병환자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후원하고 있다.

◆ YMCA 내 Acting School 연기 발표회

양곤Y 2층에 위치해 있는 Acting School은 연기자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Class이다. 아띠들은 발표회에 초대받아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고 답가도 부르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날 저녁에는 신문기자가 아띠들을 취재해갔다! (wow)

+Acting School 원장님은 양곤 Y총장님 사모님으로, 놀랍게도 미얀마에서 누구나 다 아는 배우라고 한다.

◆ 아띠들의 소감

- Y가 가진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석)
- 드디어 청년들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에너지를 받아갔다.(태)
-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우리뿐이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자는 아옹의 한마디 에너지!(식)

4) Maubin / MF



◆ 마우빈 MF소개

3개 마을(HTAN PIN GWE, KA NAUNG TWO, MAUBIN)로 시작해서 지금은 20개의 마을,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10년째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마을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에서 5000억원을 지원하고, 양곤 Y에서 진행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최종 목표는 88개의 마을과 5000명의 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 아띠들의 소감

- 참여하는 청년, 직원, 주민들의 표정이 밝았다.(송)
- MF의 모든 과정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석)
- 그 당시 M.F때문에 모인 분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나에게 까지 희망을 주는 힘을 받았다.(식)
- 그들의 삶을 엿보러 간 외국인인 우리를 너무 좋아해주셔서 다행이었다.(태)
- 마을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MF를 실제로 해나가기가 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설)

카페 'illy'



→ 아띠들이 특별한 기분을 내고 싶은 날 찾는 이 곳.
카페 일리. 회의를 하거나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다. 서비스로 나오는 땅콩이 짱 맛!
거리가 가까워서 더,더,더 좋다.



→하지만.. 저렴하지만은 않은 메뉴판..ㅠㅠ

쉐다곤 파고다



→ Y직원 분인 라주 씨와 트렁크에서 가족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중석!



→ 요일 별로 마련되어 있는 기도하는 장소. 태어난 날짜에 맞추어 기도를 하는 곳이다.

→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태정.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보족마켓



→ 미얀마에 온다면 꼭 한번쯤 들렀다 가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족 마켓.
일부 아띠들은 이미 단골 가게가 생겼을 정도로 시
장을 들락날락 했다고 한다.



아띠들의 숙소생활



→ Y숙소 703호, 704호에서는 매일 밤 영화상영과 체스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환영



#1. 처음이 주는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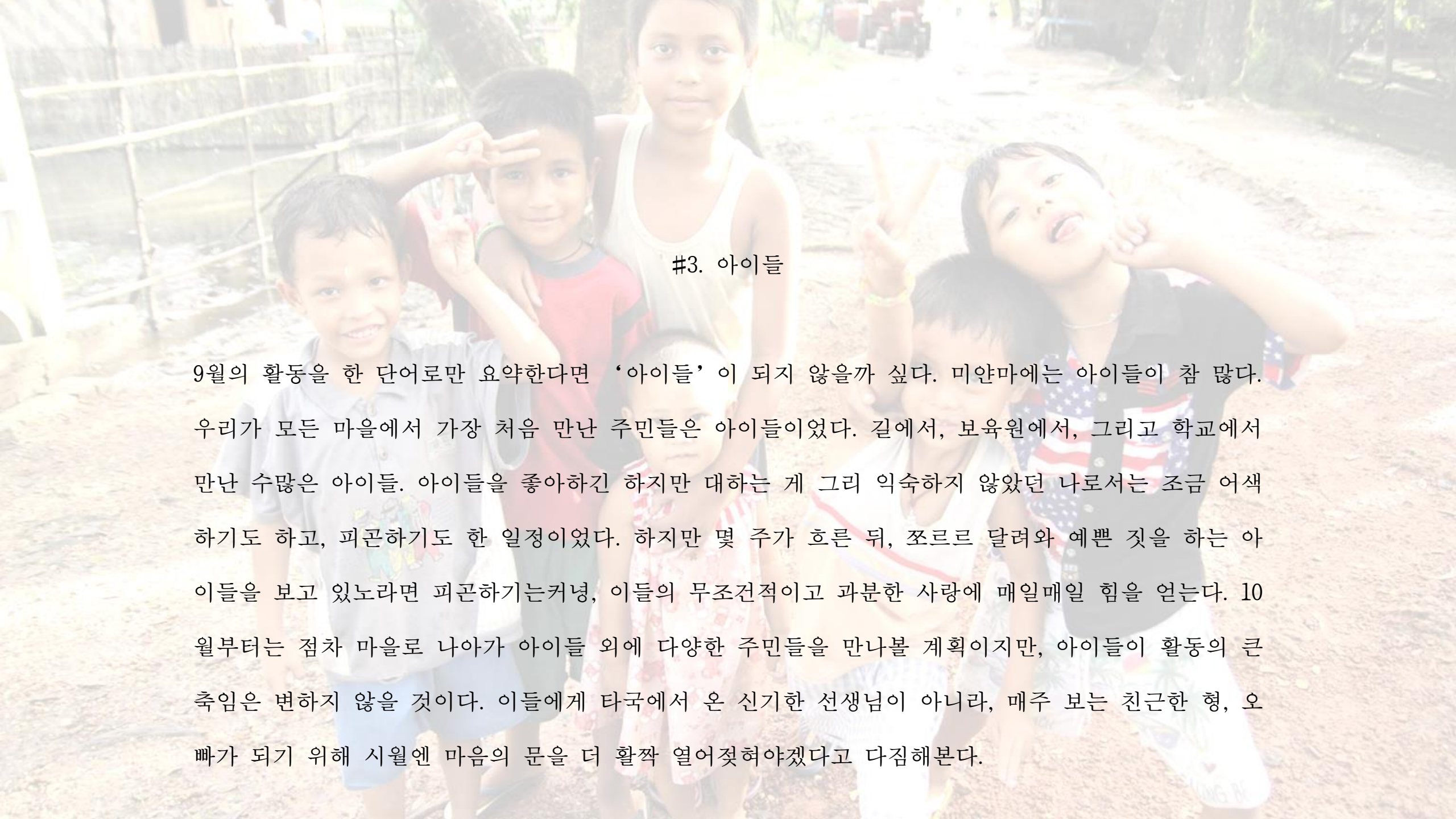
9월은 처음인 것들의 연속임과 동시에, 기쁨의 연속이었다. 라온아띠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미얀마 팀이었고, 나로서도 처음으로 여행이 아닌 타지에서 '삶'을 시작해보는 계기였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국내훈련 때부터 우리 팀을 따라다녔지만, 이곳에 온 뒤로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보다 설렘이 훨씬 크다. 그 흔하다는 물갈이 한 번 안 한 채, 우리는 이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 하루하루 처음의 매력들을 맛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한 미얀마로서도 세상에 처음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인데, 지금 이 시기에 미얀마에 오게 되어 참 행운이다. 매일 이곳의 풍경과 사람들에게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순수'를 발견한다. 이 모습들이 몇 년 뒤, 당장 1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하기에, 나는 지금 이곳에 와있어 기쁘고 행복하다. 이 처음이 가져다 준 기쁨이 환상이 아니길, 또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대한다.



#2. 길 위에서의 삶


하루 4시간, 우리가 매일 마을을 오가며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 처음에는 신기했다. 울산에서 국내훈련을 받을 때도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길 위에서 보냈는데, 이 ‘길 위에서의 시간’이 우리 팀의 정체성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침부터 덜컹거리는 버스와 기차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빠질 때가 많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고민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 고민은 차츰 불만으로 변해갔다. 왜 처음에 약속했던 배를 안 태워주는 거지?, 왜 하필 이렇게 먼 곳으로 마을을 정한 거지? 같은 불멘소리들이 세어 나왔다. 그러다 함께 다니던 정 간사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이동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는 시간으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가는 마을은 ‘섬’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을 해주셨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길 위의 시간과 마을에서 보내는 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풍경들 모두 마을 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할 지는 계속 고민 중이지만, 우리는 이 ‘길 위에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슬슬 몸도 적응해가는 중이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서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곳을 알아간다.



A group of five children are posed for a photo in a rural, outdoor setting. In the center, a young girl in a white tank top has her arms around two other children. To her left, a boy in a red shirt and another boy in a grey polo shirt are making peace signs. To her right, a girl in a black t-shirt with an American flag pattern is also making a peace sign. In the foreground, a smaller child in a pink floral dress looks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shows a dirt path, some wooden structures, and trees.

#3. 아이들

9월의 활동을 한 단어로만 요약한다면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얀마에는 아이들이 참 많다. 우리가 모든 마을에서 가장 처음 만난 주민들은 아이들이었다. 길에서, 보육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만난 수많은 아이들.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대하는 게 그리 익숙하지 않았던 나로서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흐른 뒤, 쫓르르 달려와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피곤하기는커녕, 이들의 무조건적이고 과분한 사랑에 매일매일 힘을 얻는다. 10월부터는 점차 마을로 나아가 아이들 외에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볼 계획이지만, 아이들이 활동의 큰 축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타국에서 온 신기한 선생님이 아니라, 매주 보는 친근한 형, 오빠가 되기 위해 시월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양곤 YMCA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로 하게 된 활동은 지역 Y의 널서리 스쿨이나 애프터 스쿨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선생님의 수업을 보조하는 것이었다. 내가 보기에 널서리 스쿨이나 애프터 스쿨은 나름대로의 일정을 따라 잘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크게 없는 것 같았다. 코디네이터인 산드라나 Y 스태프들이 우리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일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차려진 10인용 밥상에 뒤늦게 비집고 들어가 앉는 것처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일에서 우리의 몫을 조금 나누어 받아야 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노래하는 시간 중에서 10분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 “그때 체조를 같이 해볼까?” 우리는 관찰하고, 고민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어느 날에는 깡홀라의 널서리 스쿨에서 아이들이 글씨 쓰는 것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었는데, 선생님이 연필을 깎아달라고 다가오는 아이들을 나에게로 보낼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아이들을 만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줄곧 마을로 나갔다. 마을을 바라볼 때 우리들 서로가 주목하는 것들은 다 달랐지만 (그래서 재미있다.) 이 마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누가 뭘 하며 사는지, 길에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인지 등등 ... 마을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동네 지도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대나무로 만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을 걸으며 지도를 그리고 있으면, 가끔 우리를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졸졸졸 따라오기도 했다.

우리는 Y에서 주관하는 Micro Finance 사업의 주민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동네 아주머니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듣던 대로 미얀마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서, 특히 구준표와 이준기를 좋아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이전까지는 우리도 마을이 낯설고 마을도 우리를 낯설어했지만, 아주머니들 옆에서 나란히 걸을 때만큼은 한 다리를 건너 좀 더 친근하게 마을과 인사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는 이렇게 현지와 만나고 있다. 지금은 연못, 길, 사원처럼 큼직한 것들만 대략 표시되어 있는 지도이지만 만남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마을 지도는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 (개인 에세이인데도 ‘나’ 보다 ‘우리’ 라는 주어 가 더 많은 것은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

여담이지만 9월 말에 한 기자가 우리를 인터뷰 했었는데, 그때의 인터뷰가 얼마 전에 신문에 실렸다. 페이지의 중간에 우리 사진이 크게 박혀 있고, 5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YMCA 자원봉사자로 5개월 동안 양곤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산드라가 읽어준 바에 따르면 그 기자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평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겼다.” 우리가 양곤의 낯성에 적응해야 하는 만큼, 양곤도 그런가 보다.

김정식 (Sik)

양곤의 구름이 이곳의 시간을 업고 둥게둥게 떠간다. 한국 이었으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갔구나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아니다. 고작 띠가 끊어진 시계 알로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이 났구나” 할 정도이다. 30여 일을 그렇게 보내왔다. 200여명의 사람들과 적어도 3초 이상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해 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지레 짐작이 될 것이다. 그 와중에 하루 24시간 중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항상 붙어있는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는가. 허리와 목은 뻐뻐이 서고 배에는 힘을 주어 살짝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긴장하던 것이 이제 하나, 둘씩 풀리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는 아주 좋은 곳이다. 나에게 좋은 곳이라 함은 풍경이 아름답고 날씨도 선선하고, 사람들이 착해 부담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해가 쨍쨍할 때 우산을 쓰지 않으면 빈사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빼고는 나의 좋은 곳에 모두 들어맞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곳의 사람들 때문에 ‘나는 지금 미얀마에 사는 구나’ 하진 않는다. 항상 붙어 다니는 백형, 다정·설 누나, 태정 때문에 ‘나는 지금 한국이 아니 구나’ 하고 되새김질 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 사람들도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니 2달여를 같이 지냈기 때문에, 게다가 말도 통하고 같은 공간에 살았기 때문일까. 그들은 내가 부정하고 잊으려 했던 것들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언젠는 내가 정말 잊고 싶고 부정하려던 나의 모습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것은 잔인 하리 만치 차가 왔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따뜻하고 감사한 위로와 격려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깊은 생각과 지금껏 내가 느낀 나의 가장 밑바닥을 디뎠다. 이보다 더 감사한 선물이 있을까. 수억 금을 주고 너를 잊어라 하는 것보다 나를 보게 해주는 것은 부모들도 하기 힘든 일일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흔히들 말한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백 명이건 천명이건 모두 다르다. 그들의 눈이 다르기에 나 또한 백 가지와 천 가지의 다른 이미지로 비춰질 것이다. 그러나 백 가지, 천 가지의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기 보다는 한결같은 곁에 있는 사람을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뺏어나가게 할 수 있는 반석이 되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오늘의 닭고기카레는 맛이 있었다. 저녁도 맛있는 밥이 나왔으면 좋겠다. 숨 쉬러 가야겠다.

#1. '처음', 그 의미

미얀마를 제1지망으로 선택할때는 온갖 환상에 가득 차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나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의 현장, 영화 더레이디를 보고 알게 된 아웅산수치 여사의 이야기와 미얀마의 역사. 그리고 미얀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불교의 나라, 거대한 사찰, 쉐다곤 파고다. 컴퓨터 모니터와 글자 너머로 엿본 미얀마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매력적이었다. 라온아띠 12기 미얀마 팀의 첫 번째 기수가 되었을때는 오묘했다. 처음이라서, 첫 팀이라서.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늘 이름 앞에 붙이고 다녔다. 커다랗던 나의 호기심과 모험심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격려를 받으며 이상하게 그 크기가 작아졌다. 보통은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으로 출국 비행기에 오를수 있겠지만, 나는 그 불안감과 걱정이 머릿속을 뱅뱅 맴돌때에 이 곳 미얀마에 왔다. 다음 기수에게 남아있는 결과물을 물려주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 들.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부응을 해주어야 할 것같고. 어깨가 무거웠다. 마치 씨앗이 잔뜩 뿌려진 고운 땅위에 덩그러니 서있는 느낌이 들었다. 국내훈련때에 들었던 '무언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과 현재상황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거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하지?' 복잡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만났다. 길 위에서 아이들을 만나 신나게 놀았다. 또 그러다가 주민분들을 만났다. 그분들의 집에 초대받아 음식도 나누어먹고 가족이야기를 들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는 마을을 걷고 있었다.

어느 순간 확!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을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첫 번째 기수이니까 해야 하는 노력. 마을과 소통하기 위해 하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곧 지속가능한 마을과의 소통법을 찾아내는 것.

국내훈련과정에서,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의 답은 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하면 데이케어센터 유아들을 만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주민들을 만난다. 쉼피따에서의 활동을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가 짐계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아이들이 쫓르르 달려와 마당을 쓴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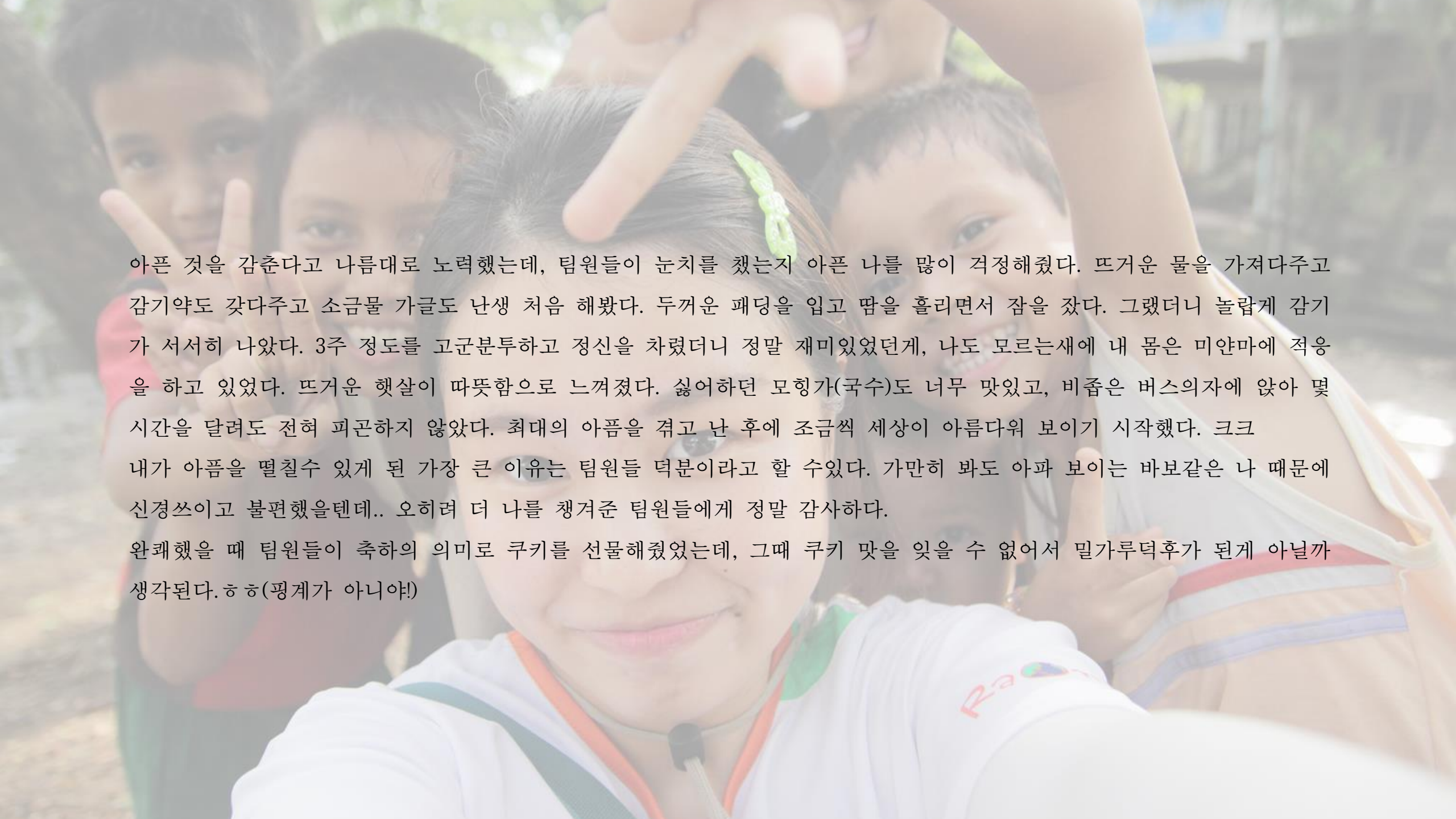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답을 얻은 뒤에는 곧 내가 상상했던 신비로운 나라 미얀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참 뒤늦게야 아름다운 이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씩 이곳을 즐기려고 한다. 나에게 있어서 이번해 9월은 첫 시작의 고민기간이자 땀을 들이는 한 달이었다.

10월부터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이다.

#2. 9월의 아픔. 밀가루 쟁이.

늦은 밤 후덥지근한 미얀마 공항에 도착해 코디분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건넌 첫마디. 바이싸래!(배고파요) 출발하기 전 비장하고 약간은 들떠있었던 그 무거운 마음이, 비행기에서 내리고서는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으로 바뀌어 긴장을 녹아내리게 했던 첫 마디였다.

그 긴장감을 너무 루즈하게 놓아버린 탓일까. 양곤에서의 첫 하루가 시작되고, 나는 지독한 감기몸살에 걸렸다. 한국에 있을때는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 한 건강한 나인데 부들부들 떨며 감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양곤 시내를 돌며 구경도 하러가고, 우리가 활동하게 될 세군데 사이트를 라운딩 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할 일정 등등 2주 정도는 새로움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바빴다. 힘들때마다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혼자서만 쉬기에는 함께 있는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는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은 내 욕심도 있어서 아픔을 꼭 참고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하품을 하다가 턱도 빠졌다. 하하하 덕분에 미얀마의 병원 응급실 구경도 했다. 코는 막혔고 입은 안 다물어지고..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 때에는 혼자만의 싸움으로 활동에 깊이 집중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다.



아픈 것을 감춘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팀원들이 눈치를 챘는지 아픈 나를 많이 걱정해줬다. 뜨거운 물을 가져다주고 감기약도 갖다주고 소금물 가글도 난생 처음 해봤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잤다. 그랬더니 놀랍게 감기가 서서히 나왔다. 3주 정도를 고군분투하고 정신을 차렸더니 정말 재미있었던게, 나도 모르는새에 내 몸은 미얀마에 적응을 하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이 따뜻함으로 느껴졌다. 싫어하던 모헝가(국수)도 너무 맛있고, 비좁은 버스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달려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최대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조금씩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다. ㅋㅋ 내가 아픔을 떨칠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팀원들 덕분이라고 할 수있다. 가만히 봐도 아파 보이는 바보같은 나 때문에 신경쓰이고 불편했을텐데.. 오히려 더 나를 챙겨준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완쾌했을 때 팀원들이 축하의 의미로 쿠키를 선물해줬었는데, 그때 쿠키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밀가루덕후가 되게 아닐까 생각된다. ㅎㅎ(핑계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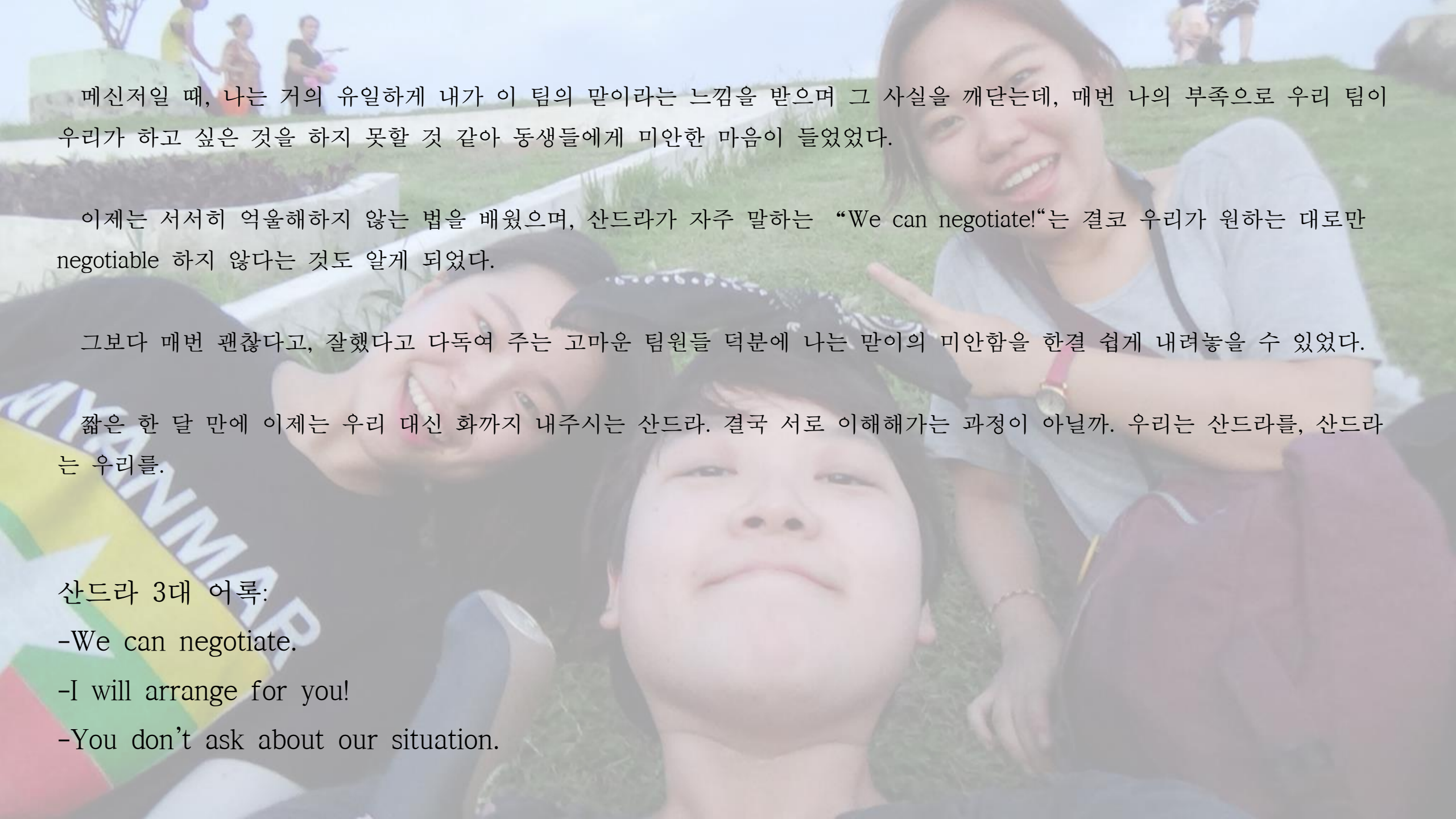
<몰랐던 메신저의 역할에 대하여>

영어 회화를 가장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우리 팀의 메신저이다.

솔직히 출국 전에는 조금 알봤었다. 그냥 영어 통역이겠지, 하고.

나를 따밀레(사랑스러운 딸)라고 부르시는 우리 현지 코디 산드라는 나보다 큰 아들이 있으시고 22년째 양곤 Y에서 일하시는 사랑스럽지만 노련한 분이시다. 우리가 미얀마 첫 기수인지라 우리가 왔을 때 정해져 있던 건 우리가 지내게 될 방 한 칸, 딱 그것뿐이었다. 크게는 우리가 가게 될 사이트 정하는 것부터 작게는 우리 방에 휴지가 다 떨어졌다는 말까지 내가 전해야 했던 말들의 스펙트럼은 굉장했다. 양곤 Y 사무총장님의 오른팔인 산드라는 굉장히 바쁘셨고, 한번 만날 기회가 생기면 나눔 때 팀원들과 준비한 리스트를 체크하며 이야기해야 할 만큼 우린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매번 나는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다리를 해야만 했다. 팀원들과 합의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동시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산드라의 반응들에 재빠르게 방어하고 공격해야 했다.

방어와 공격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드라와의 회의가 끝나면 나는 그 정도로 지치고 진이 빠져 있었다. 상황 별 스크립트까지 짜갔는데도 불구하고 산드라는 회의 흐름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었다. 억울해 죽을 것 같았지만 얼굴은 웃으며 회의실을 나서는 우습지만 웃지 못 할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메신저일 때, 나는 거의 유일하게 내가 이 팀의 맏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그 사실을 깨닫는데, 때면 나의 부족으로 우리 팀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다.

이제는 서서히 억울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산드라가 자주 말하는 “We can negotiate!”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negotiable 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보다 매번 괜찮다고, 잘했다고 다독여 주는 고마운 팀원들 덕분에 나는 맏이의 미안함을 한결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짧은 한 달 만에 이제는 우리 대신 화까지 내주시는 산드라. 결국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는 산드라를, 산드라는 우리를.

산드라 3대 어록:

-We can negotiate.

-I will arrange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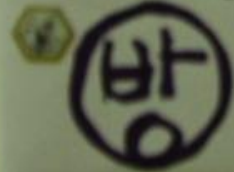
-You don't ask about our situation.

We are Here. Myanmar.

အိန္ဒိယနိုင်ငံအတွက်! (ကိုးကွယ်ပါသ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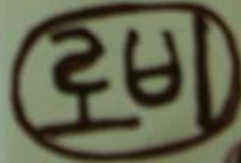
We are
Here!



5 floor



Lobby



Go out

